

2017 지역 복지 리빙 라이브러리

할머니들의 기차여행 '실버로!'

- 사례 관리 -

공유선 사람책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사회복지사(재가노인지원사업)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

사례관리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싶은 분

주요내용

사례관리! 문제에 집중하지 말자
무엇에 집중하며 당사자를 만나고 있나요?
어르신들의 꿈을 이뤄가는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당사자를 만날 때 어떤 대화가 주를 이루나요?

- 우리가 먼저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묻고 있지는 않나요?
- 한 번이라도 당사자들과 꿈을 나눠본 적 있나요?
- 우리가 먼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당사자들을 만나는 관점이 변해야
당사자들도 자신의 삶을 보는 관점이 변합니다.

청년들의 로망 '내일로'? 어르신들의 로망 '실버로'!!

- 기차여행을 꿈꾸는 어르신들 이야기
- “친구랑 여행? 나한테는 꿈이지 뭐~”
- 건강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홀로 생활하는 환경으로 접어왔던 어르신들의 꿈.
- 어르신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차여행 과정.

함께 여행 할 친구를 만나는 모임

- 함께 여행을 꿈꾸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모임을 주선하기
- 다양한 어려움 속에 막혀 있던 꿈을 둘레사람과 함께 이뤄가며 지금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어르신들의 이야기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발바닥 사회사업 실천이야기

권대익 사람책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일꾼

저서 1. 「신입 사회복지사의 좌충우돌 실천이야기」 푸른복지

저서 2. 「주민과 함께한 방학동 마을잔치 이야기 골목대장터」 푸른복지 공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

지역복지 4년 실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

발바닥으로 동네를 다니며 사회사업 실천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

주요내용

어느덧 지역복지 5년차 실무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네에서 뜻있게 실천하고자 애썼던 이야기를 5가지 주제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소진되지 않는 4가지 키워드 : 공부·사람·추억·글쓰기
2. 마을 인사 이야기
3. 반찬마실 실천 이야기
4. 홍보사업 실천 이야기
5. 마을잔치 실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

1. 어렵고 치열한 사회복지 현장. 소진·번아웃을 어떻게 이겨 낼 수 있을까요?

2. 사회사업은 인사가 절반입니다. 신입 사회복지사는 인사의 구실입니다. 복지관에 입사 하면서 제일 마음에 두고 다짐했던 부분이 바로 인사였습니다. 여러 구실과 방법으로 동네를 다니며 인사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3.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건 처음이야.”

“내가 혼자 해먹으면 맛이 없는데 함께 먹으니 잘 넘어가네.”

어르신이 직접 메뉴를 선택하고 시장을 보고 음식을 조리했습니다.

반찬으로 시작한 사업이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4. 마음만 먹으면 책상에 앉아 소식지 내용을 채우고 배포할 수 있지만 직접 지역사회를 다니면서 홍보 사업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발바닥으로 소식지를 만든 이야기, 온 동네를 수레를 끌면서 소식지를 배포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5. “다른 곳에서 하면 이런 행사가 되지 않아. 골목대장터가 정말 주민이 만드는 마을잔치지”

어느 주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유명한 연예인을 부르는 축제, 인원동원으로 만들어 지는 행사, 수익금을 위한 대규모 장터의 모습과 달리 골목대장터는 누구나 여러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마을잔치라는 의미입니다.

2017 지역 복지 리빙 라이브러리

마을활동의 기술

박흥수 사람책

광진지역자활센터
광진주민연대
서울시복지재단 보광마을살이 대표활동가(2013~현재)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

주민을 만나는 활동을 하는 모든 분,
하소연도 하고 힘도 주고 받고 싶은 분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마을활동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분

주요내용

- 「마을활동의 기술」에 나온 에피소드 나누기
- 에피소드 1. 활동가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 에피소드 2. 공무원과 친해지기; “친해지면 떠나가네”
 - 에피소드 3. 골목청소모임; “시간을 쌓는 사람”
 - 에피소드 4. 찾아오는 주민들; “때론 기다리는 것도 좋은 활동이다”
 - 에피소드 5. 정말로 중요한 것; “활동가의 조직은 탄탄한가?”
 - 이외에, 나누고 싶은 여러 마을활동의 이야기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에는
“원자 물리학의 모든 법칙들은 이러한 확률(설명-공간의 특정 지점과 특정한 시간에 입자를 찾아 내는 확률)로 표현된다. 우리는 원자적 사건을 결코 확실성 있게 예언할 수 없다.
단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것 같은가를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양자론은 이렇게 견고한 물체와 엄격한 결정론적인 자연 법칙이라는 고전적인 개념들을 말소시켰다. 아원자적 단계에서 고전 물리학의 견고한 물체는 파동과 같은 확률 모형들로 분해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형들은 사물의 확률이 아니라 상호연관의 확률을 나타낸다.
원자물리학에 있어서 관찰의 과정을 주의 깊게 분석해 본다면 아원자적 입자는 독립된 실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험의 준비와 그 다음의 측정 사이에 있는 상호연관으로서만 단지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과학적이라는 학문인 물리학에서 ‘확률’과 ‘상호 연관’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주민을 만날 때도 비슷합니다. 다양한 주민을 ‘확률적’으로 만나고, 일방의 관계가 아닌 ‘상호 연관성’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을활동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년문화공간 JU동 교동

2017 지역복지리빙라이브러리

내가 먼저, 웃으면서 큰소리로 인사나눔 캠페인

-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생활복지운동 -

배인호 사람책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대리(2009~2014)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장(2014~현재)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

생활복지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계를 살리고 싶은 분
주민조직활동을 통한 지역변화 외 다른 방법을 찾고 싶은 분
나와 복지관 직원들을 통한 작은 실천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고 싶은 분

주요내용

복지관 지역조직팀에서의 한계와 나의 변화
관계를 통한 생활복지운동의 준비
복지관 내 생활복지운동
학교 연계를 통한 생활복지운동
오른손이 한 일을 온 몸이 알게하라(지역 내 복지기관 연계)
공공기관 연계 생활복지운동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역이 삭막해져 가는 속도는 사회복지사 한 명의 힘으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마을조직활동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일궈내려 노력하지만 늘 부족해 보입니다. 지역주민들간의 강한 연결을 통한 꾸준한 변화도 필요하지만 느슨한 연결을 통해 많은 주민들과의 만남 또한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은 이런 고민을 품고 2016년부터 김세진선생님을 비롯 전국에 계신 20여명의 지역조직팀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생활복지운동에 대해 공부하며 지역 내에서 실천해 왔습니다.

생활복지운동을 진행하며 복지관의 한계와 담당자의 과업무, 직원들과의 관계, 생활복지운동의 실효성 등 일의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도 하였고 때론 사회복지사로서 “이보다 좋을 순 없다”라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최고의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과 즐거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생활복지운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기관에는 고민의 최소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활동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해서 하시는 일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년문화공간 JU동 교동

2017 지역 복지 리빙 라이브러리

‘Book소리’ 아동동아리와 함께, 면목7동 새마을문고 책 읽어주기 활동 기획하기

신보경 사람책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방과후교실, 아동프로그램, 부모교육, 성인자조모임, 사례관리 업무 담당
2017년 동별로 조직개편하여 면목7동 주민만남에 주력하고 있음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

아동동아리 활동,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기에 관심있는 분

주요내용

마을문고 내 프로그램을 복지관과 지역 아이들이 함께 기획하고, 진행한 이야기
사업비 ‘0원’으로 ‘Book소리’동아리 아이들과 대전여행 한 이야기
지역 주민들을 섭외해 문고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면목7동새마을문고 책 읽어주기 활동을 ‘Book소리’ 아동동아리와 복지관이
기획한 이유는?**

: 주민의 말에서 시작된 활동

‘Book소리’ 아동동아리의 조직과 운영은 어떻게?

: 참여자 모집의 비하인드 스토리

: 자신을 도와 줄 선생님을 면접보고, 선발한 아이들

책 읽어 주기 활동 진행한 이야기

: 아이들이 직접 하는 모금활동 이야기

: 우여곡절 많았던 대전 탐방기

: 활동을 통해 마을문고에 찾아 온 주민들 이야기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년문화공간 JU동 교동

2017 지역 복지 리빙 라이브러리

사람은 왜 남을 도울까?

-평범한 생활 속 주민모임 사례와 실무 프로세스 공유-

이가영 사람책

전)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근무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조직팀 과장(2011~현재)
지역주민육구조사, 이웃과 함께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 등에 주력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

주민동아리, 평범한 생활 속 주민모임 잘 해보고 싶은 분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이 꿈꾸는 동네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특별한 곳이나 높은 이상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이웃과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물을 수 있는 동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는 이웃 만
나면 잠시 멈춰 서서 말 한 마디 건넬 수 있는 동네. 사람 사는 것 같은 동네.

평범한 생활 속 주민모임을 주선하였으며, 이 일이 왜 가치 있는지, 이웃과 인정이 흐르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을 보았습니다. 주민들을 만
나며 사람에 대해 새롭게 배운 이야기들을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오늘날 평범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로움은 150년 전 만 해도 귀족층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고독하다고, 우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증가
할까요? 소득이 아닌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대체 뭘까요. 한 인문학자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관계와 활동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 때 비로소 '살 맛'이 난다고요. 사
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비의 풍요, 서비스의 과잉이 아닌, 자존감과 연대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라고요.

뇌과학자들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생체리듬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타인과 함께 상호작용해야만 자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뇌 안에는 일종의 공명시스템이
존재하고, 인간은 타인이 주는 조절정보로 자신의 호르몬 수치나 면역기능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필
연의 문제입니다.

복지관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수다 떠는 이웃관계들을 주선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얻은 배움과 감동, 그러므로 이 일
을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된 열정의 근거들을 사회복지사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년문화공간 JU동 교동

2017 지역 복지 리빙 라이브러리

마을 이웃과 가족의 관계를 잇고 살리는 소박한 모임 이야기!

-이웃과 책 읽는 모임,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산책모임-

이종진 사람책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장(2005~현재)
백세희망협동조합 이사(노인일자리 커피숍 운영)
아산충무행복포럼 위원(민주주의와 공정사회 실천단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

마을 이웃과 가족의 관계를 잇고 살리며 붙잡는 소박한 모임 나누고 싶은 분

주요내용

마을 이웃 가족간 관계를 잇고 살리는 구체적인 행동 왜 필요할까요?
이웃과 책 읽는 모임,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산책모임 이야기!
모임을 어떻게 일구어 나가고 있는지, 모임을 통해 얻는 배움과 변화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을 이웃과 가족의 관계를 잇고 살리는 일, 왜 주선하고 거들어야 할까요?

「사람은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 어울려 살기에 인간입니다. 혼자서는 인간이라 할 수 없고 존재 가치나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요결 사람과 사회 중>

우리 사회는 개인의 개성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관계지향적인 사회입니다. 모든 일은 관계와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웃·가족과의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 온갖 문제는(갈등, 대립) 대부분 가족 사이 애정이 사라지고, 이웃 사이 인정이 사라지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시대, 이웃과 가족의 관계를 잇고 살리는 일 거들고 주선함으로 이웃 사이 인정이 자라고, 가족 사이 화목과 애정을 기르도록 만듭니다. 관계가 풍성한 사람은 신뢰와 배려, 존중 있고,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년문화공간 JU동 교동

2017 지역 복지 리빙 라이브러리

마을 이웃과 가족의 관계를 잇고 살리는 소박한 모임 이야기!

-이웃과 책 읽는 모임,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산책모임-

이종진 사람책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장(2005~현재)
백세희망협동조합 이사(노인일자리 커피숍 운영)
아산충무행복포럼 위원(민주주의와 공정사회 실천단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웃과 책 읽는 모임」,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산책모임」 주선하고
거들기! 이를 통해 얻는 배움과 변화는?

이웃에게 책 읽는 모임 활동 제안합니다. 이웃과 관계하는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입니다. 가끔 모여 책 읽고 생각을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며 지식도 얻는
자리입니다. 이웃과 격식 없이 만나고, 수다가 있고, 차도 마시며, 입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이웃과 관계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결속을 다지는 기회 만듭
니다.

「책모임을 통해 일상적 지식과 정보를 얻고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곧
잡는 기회가 된다며 귀한 모임 주선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모임이 기다
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책모임 참여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산책모임 주선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루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아빠로 좁혀서 보면 한국 아빠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 6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
와 보내는 시간, 특히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아이들의 신체적 혹은
정서적 발달을 형성해 나가는데 결정적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간 애정을 기르는 일, 특히 아빠와 자녀간 관계를 붙잡고 살리는 일 필
요합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일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몸도 피곤하고 귀찮아서 참석을 고민했는데, 막상 참여해
보니 자녀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귀한 시간 만들어
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산책모임 참여자-

이러한 소박한 모임 계속 주선하고 거듭니다. 그래야만, 마을 이웃과 인정이
자라고 가족간 애정이 길러져,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년문화공간 JU동 교동

2017 지역 복지 리빙 라이브러리

민과 관이 함께하는 '이심전심(以心傳心)' 학습공동체 이야기

임장현 사람책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팀장 (2007~현재)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

지역 내 사회사업가를 중심으로 한 학습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
지역 내 민과 관이 함께하는 학습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

주요내용

1. 세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분과 모임 신설
2. 사례관리분과 첫 모임
3. 학습을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 분과 모임, 그리고 지역복지 학습공동체
4. '이심전심(以心傳心)' 학습공동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몇 번의 만남으로 지역사회의 많은 변화가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학습모임 자체가 직접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진행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를 생각하며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뿌린 씨앗이 언제 어떻게 열매로 나타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사업가로서 함께 모여 '학습'하는 시간은 귀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동주민센터가 함께 학습하는 시간...
현재 진행형인 학습모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년문화공간 JU동 교동

2017 지역 복지 리빙 라이브러리

우리 지금 만나

- 자조모임 활동으로 이웃관계를 주선하는 사례관리 실천 -

최정아 사람책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주임 (2013~현재)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

자조모임을 사례관리 실천과정으로 이뤄가고 싶은 분

주요내용

사례관리 실천과정에서 자조모임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속력이 강한 주민모임이 아닌 **소소한 모임**으로 당사자가 더욱 주체될 수 있고 새로운 이웃과의 만남으로 사람사이 관계를 넓혀갑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례관리 실천을 하며 만난 당사자 가운데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도우며 나누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해주십시오.

동시에 여러 가정과 실천하며 알아가는 당사자분들을 관계 주선하며 새로운 관계로 겪는 어려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사정, 개인적인 속내. 누구에게 쉽게 이야기하기 힘들어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이웃을 알고 어울리고 싶지만 자연스러운 자리가 없습니다.

자조모임이 사례관리 또는 사례관리 실천 뒤 사후관리에서 만남의 구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역량을 알고 나눔 활동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주민 역량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 저녁 7시, 복지관을 사랑방 삼아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차 마시며 이웃을 차차 알아가는 ‘차차차 모임’

사례관리 실천 과정으로서의 자조모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년문화공간 JU동 교동